













### 노래 - 우리 해방의 무기

우리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의 노래는 1989년 6월달에 건설됐다. 처음에는 노동조합 문화부에서 노동가들을 보급하기 위해 배서서 활동하고 있던 밴드반을 주축으로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동원하면서 시작해 그후 밴드 반 5명(전자 기타, 베이스, 드럼, 전자 오르간 2명)으로 구성하고 노래반7명(남자4명 여자3명)으로 구성되어 출발했다.

밴드음악의 형태는 일반 대중가요의 풍을 벗어나서 뜻깊은 풍광의 느낌과 함께 노동의 전문 문화 예술 단체인 노동자문화예술동맹연합의 지도를 받았으며 노동자의 참모습을 조금씩 알았다.

악기들의 연주 능력과 노래반의 노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문화체육로서의 지위를 굳혀 갔고, 1989년 9월 우리들의 모습을 조화한 노래 자랑 행사에서부터 대중앞에 자신있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래자랑 행사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공연은 연일매 건 건설을 얻어 있고 90년 4월부터는 단련행악연을 앞두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현장 순회노래 공연을 계획했다. 그리고 4월25일 내과인 참여에 있었던, 운동장 집회에서 그들의 우리들의 노래는 하나씩 목소리를 울려 퍼졌다.

그러나 공연이후 현장 공연이 중단되고 대량 투쟁 사태로 인해 노래자랑의 동지적 구속에 갖지 못했을 때는 동맹원이 가해지면서 활동은 위축되어 갔다.

그리고 환풍하던 풍자들도 하나 둘 그만두기 시작했다. 급

기어는 노래자랑의 존재 위기에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각오로 기존에 남아 있던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인원을 모집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다시 부를 때를 기다리기로 시작했다.

빈지 타지, 노래메와 만나서 서로의 활동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90년 8월에는 거제지역의 「한가수 노래메」 서울 지역(지하철 노조) 「소리들길 노래메」 울산지역의 「노래마당」이 모여서 서로의 어려움들과 앞으로 지어 노래를 해 나가야 할 일들을 토론하며 공동 인식에 나아갔다. 물론 연대의 기쁨을 마련하자는 의견에도 공감감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간다는 뜻을 다졌다.

그러면서 우리 노래메가 실천해 나가기에 할 역할은 세로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몇몇 공연이나 출연이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과 항상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불러주어 나감으로 노동자의 대중기반을 확보해 나가기에 노래측에 접근적인 의미를 인식시켜 집단적인 의식의 승화와 노동자문화의 독자성을 개발하는 일인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해 노래운동에 대한 헌신, 구제적으로 이렇듯 연수를 해야 하고 지역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적이며 양적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에는 겨우 서너가지 노래만을 가지고 10월호가 넘는 시절까지 행진

# 투쟁속에 태어난 문화 투쟁으로 건설될 문화



했다. 그때서 몇곡 퍼져있는 노래였지만 그 많은 공중을 하나로 이끌어내는 데는 이 노래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것은 누구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일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대투쟁에서 노래를 아니 그들의 이기가 지 문예적 수단들을 무기로 삼아 대중들을 선전, 선동하는 일이야말로 왜 우리가 노래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노래운동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적이며 양적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강상으로 우리의 능력들을 키워 나갔다.

그러면서 실천적인 활동으로 우리의 역량을 더욱더 실증시켰는데 지난 10월 전국 노동자 신문주최 「해방가요제」에 참석하고 중단되었던 현장순회 노래공약도 다시 실시 해 나가고

우선 성취권에 따라 권여받은 일의 마음 가득한 행진이 가슴을 흥사가 되었다. 땀만 맺는 행진에서 조금조금한 풍사로 인해 비린 모습에 풍동사도 잊고 가운도 감지된 무로 의사가 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가득한 아스팔트 끝까지 달려도 하나 둘 떨어지지 거리에 흩날리는데 무슨 난쟁이까지 마음까지 원순간 냉랭하게 일어 비탄도 열아름은 장문을 달고도 하지 않는 가을의 정취가 또한 내 어린 가슴을 파고들어 가장 솔직한 다가와서 실은 어깨 끝의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내 누워진 알고 지 깊은 영혼으로 끝으로 근두박치며 오늘도 나는

**세번째  
투쟁속에  
싹튼 문화**  
(성남노동자문화회 생활글)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노래매) 「노래마당」

### 팬을 들고 이제는 당당히

부르고 해방 승전을 높이 들었던 지난 날들, 내게는 그런 날 그런 가슴 뻐한 것으로도 노동해방을 맞 보았지만 노동자로서의 가난은 용서할 수 없고 지나가는 출신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게는 그런 날 그런 가슴 뻐한 것으로도 노동해방을 맞 보았지만 노동자로서의 가난은 용서할 수 없고 지나가는 출신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실질적인 맥처럼 가슴속에 불고 떨어지는 내면만큼이나 흔들리는 마음을 배로 잡으며 다시 기린을 해라 할 때 불탄과 초조는 무겁게도 나를 따라 다녔다. 이렇게도 어렵고 힘들 때 미르르든 가슴 두들음을 참으로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고 싶었다. 내게는 그런 날 그런 가슴 뻐한 것으로도 노동해방을 맞 보았지만 노동자로서의 가난은 용서할 수 없고 지나가는 출신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못 배회 친신만인 심년 풍장 생활 만년 전적 없이 잊는 거기에 예기 하나 남더니 피곤이 상정해 늘 임의의 긴 팬들의 대상이던 그대, 그

레도 고집은 세서 김의 행방도 이르지 못하. 그야말로 용기는 팔팔 같고 인사의 가늘은 신발 밟는 내내에 입마를 때 넘어 배반 남은 빛들 만한 조카가 그레도 비레에 대한 회상은 있는 듯이 조롱 조롱한 눈을 굴리며 아바를 속여진 고개 꼭 다문 입은 행부의 모든 것처럼 떠오르는데 하루 하루가 아픈 오늘도 현실은 아무리 가난에 맞서 싸워도 기기가 거기인 것을 오늘도 행부의 모든 것은 5년후의 친한일을 꿈꾸며 속인 고개 밑으로 팬을 끌고갔다. 나는 안니 짐으로 향하던 발걸음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오대만해 바라보는 하늘은 금세 비가 올 것 같은 이 두눈 하늘이다. 이 비오는 게 믿는 나는 다시 서렸다. 문화회 무기화하여 노동해방의 부사도 당당하게 서는 그대 언니의 기가에도 진정한 웃음이 있어 웃었다. 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영옥**  
(성남노동자문화회 회원)

**우리의 쓰임새**

(195)시의 적절 - 때 마칠, 알맞은 때에

흔히 사용하는 한자어에도 막상 뜻을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어느 시골 마을의 뜻은 산리 우리말로 고쳐 써 보려고 한해볼 뉘 썼다 있는데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말을 살려 쓰고 교유 쓰는 습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모든 한자어가 나오면 사자이나 -알로, 이나운/원진(圓振) -빛장, 열쇠/낙후(落後) -뒤떨어짐, 뒤처지/간죽(賤賤) -졸업, 떨어/떨림(突然) -일발단, 뜻밖에

### 돌아오는 배낭엔 무엇이?

-배낭여행의 실태를 알아본다



문이다. 그리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그후부터 개별적으로 돌아와 본래의 배낭여행을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유럽 도시나 관광지, 명승지를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낭여행은 개인적으로 추이 나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반면에 쉽게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88년 정부당국의 해외여행자용회 조치로서 대학생들에게도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점차 많은 학생들이 서구유학지역유학에 여행자를 겸하면서 서구유학의 문화를 접하게 된다. 하나 현재 서구유학지역의 사회는 국민들의 탈 정치의 의식을 무마시키는 폐쇄-향락주의의 문화가 만연하여 허비족이 늘어나고 정문화가 문란한 상태이다. 그런상황하

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소위 선진국의 문명문화를 접하면서 최첨단 영향을 받게되고 이것은 곧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져가게되고 이는 곧 우리들의 무례와 미화 되는 것이다.

동독과 마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게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배낭여행」은 여유있고 가진 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무뎠던 자기 의식을 가지고 여행 떠날때의 상황은 좀 더 호전될 수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도 편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가을방학을 이용해 8°C의 유럽대륙을 「낭만(7)」으로 여행하려는 생각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서구문화에 적응하기는 「이방인」의 모습일 뿐이다. (김연희 기자)



지난 10일(토) 한양대 노천극장에서는 민족예술인 총연합 주최로 전태일 열사 추모기념 노동해방 대학광 「전태일, 철의 2천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진이 지극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전국 노동자의 단결을 노래로 부르며 노동해방의 뜨거운 의지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주최측의 준비부족이 눈에 띄게 드러난 관객들을 더 즐겁게 만들었다. (글:김원희 기자, 사진:강인숙 기자)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섬유-메리노 울**

**처음일수록 웃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여유가 옷에서부터 배어나는 곳 대학과, 현실의 표상인 사회가 일어나는 세계인들...

지금껏 자유라는 이름의 옷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당신은 낙타의와 양복의 격이 요구되는 사회인으로서 격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적응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

메리노 울은 여유롭게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연의 부드러운, 자연의 편안함을 성상을 다해 진해드리는 메리노 울 - 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코트야말로 만지럼 메리노 울은 처음 걸실당 당신의 인상은 더욱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만약 출근 첫날 메리노 울 양복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사회인으로서의 탄탄한 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옷, 편한 스카프-메리노 울**

가늘고 고운 양털로 만든 메리노 울은 순모 의류는 가볍고 쾌적하며 편안한 느낌을 주며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김이 거들 쉽게 원상태로 회복되어 항상 신뜻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마크가 드리는 약속**

올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올마크를 확인하십시오. 세계 130개국에서 사용되는 올마크는 100% 순모로 정밀한 편직이라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